새해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또 무산

세종시·4대강 사업 등 여야 극한대치에

예결특위 가동도 못해…서민경제만 피해

올해도 역시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세종시 수정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대치로 법정 처리시한(2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 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위가 가동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인 2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운영, 법제사법,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 국방, 지식경제, 문방위 등 7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야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3일 예결위 간사회의를 통해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키로 했으나,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늦춰지면서 예결특위가 정상 가동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로 예산안이 가장 늦게 넘어갔던 사례는 지난 2001년 11월30일이라는 점에서 19년 만에 신기록을 수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003년부터 새해 예산안이 제때 통과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 올해까지 포함하면 7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시점을 정한 헌법을 어기는 위법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 심의에 착수조차 못하면서 서민 예산의 집행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세종시 수정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예산안 직권상정과 여당의 강행처리, 야당의 실력 저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책임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1일 예산안 처리 지연이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예산안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세종시 및 4대강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세종시, 4대강 문제를 내세워 내년도 예산안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며 "경제위기 극복의 찬물을 끼얹는 예산 발목잡기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야4당 정책위의장' 간담회를 통해 4대강 예산 삭감을 결의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도 내년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가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고 있어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4대강 사업 중 수질개선 사업은 찬성하지만, 대운하로 의심되거나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계부보다 못한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는 것은 부담이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망한 경찰관 4명을 추모하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파크랜드의 한 커피숍에서 무장괴한의 총기 난사로 숨진 경찰관 4명을 추모하기 위해 한 여성이 촛불을 켜고 있다. /연합뉴스

화폐개혁 충격…北 상거래 '올스톱'

주민들 패닉 상태…상점·식당 대다수 문 닫아

'신권 결제' 요구로 곳곳서 승강이 벌어지기도

지난달 30일 전격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북한 내부 상거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등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1일 소식통을 인용해 "화폐교환 소식이 전해진 30일 낮 11시부터 2시까지 북한 장마당(시장)과 직장 업무가 일제히 중단되는 등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평성에서는 서둘러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외지 장사꾼과 출장나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역으로 몰려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인터넷 소식지를 통해 물건을 파는 상점과 목욕탕, 식당 등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장거리 버스 운행도 중단됐다고 현지 분위기를 알렸다.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 '자유북한방송'도 "현재 장마당의 물건 거래가 모두 단절된 상황이며 상인이나 주민 모두 당국의 처사에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거칠어진 현지 민심을 전했다.

일부 식당 등 접객 업소에서는 당장 신권 화폐로 계산할 것을 요구해 손님들과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 신구권 교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새 화폐가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구권을 이용한 상거래도 이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한 상점판매원의 말을 인용해 "상품의 새로운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물건을 팔 수 없다.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야 어느 정도 정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화폐개혁에 따른 신구권 화폐 교환이 휴일인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좋은벗들'이 밝혔다.

북한 당국이 1일 오후까지 화폐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한 마디도 내놓지 않아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놓고도 상당 부분 전언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이용섭 "장덕도서관 건립 비용 국비 10억원 확보"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광산구 수완지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장덕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비(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 도서관 신축에 물꼬를 텄다"고 밝혔다.

'장덕도서관'은 총 사업비 56억원을 들여 연면적 1천980㎡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착공해 2011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수완지구에 8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해 광산구청과 함께 장덕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에는 공공도서관이 16곳에 불과해 전국 광역단체 중 울산시(9개소)에 이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민 "MB, 남북정상회담 추진해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인 장성민 전 국회의원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인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을 현실화하려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대 행정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한반도 평화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있다"며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남북정상회담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또 "최근 싱가포르에서 남북 당국 핵심 인사들이 접촉했다는 설이 있다"며 "접촉이 사실이라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는 가장 전진적인 행보"라고 평가했다.

'화순군수 출마' 이윤모씨 5일 출판회

○…내년 화순군수 출마를 준비중인 이윤모(55)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장이 오는 5일 오후 2시 화순군 백암예식장에서 공직회고록 '청정골의 야생화'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연말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이 원장은 이 책에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성장 과정과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27년간의 공직생활에서 느꼈던 애환 등을 담았다.

화순 동면 출신인 이 원장은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6회 행정고시에 합격, 전남도 경제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완도·해남 부군수, 전남도의회 총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원처리 만족도

전남도 '우수기관'

전남도는 감사원의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대상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2009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일 감사원 회의실에서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행정처분에 대한 도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민원인을 이해시키는 등 도민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주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시·군 이첩비율이 높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2008년도부터는 민원의 75%를 도가 직접 처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온 것도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한 몫을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남극조사위 "2100년 몰디브·투발루 물에 잠길 것"

현재의 지구 온난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100년에는 해수면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2배나 되는 1.4m나 상승해 일부 저지대 섬나라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남극조사과학위원회(SCAR)가 전망했다.

SCAR는 더 타임스가 1일 보도한 '남극기후변화와 기후' 보고서에서 이렇게 되면 인도양의 몰디브나 태평양의 투발루 등 섬나라가 물에 잠기게 되고 인도의 콜카타나 방글라데시의 다카 등 해안도시들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런던이나 뉴욕, 상하이 등은 홍수예방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게 될 것이라고 SCAR은 지적했다. 설사 다음주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목표처럼 기온 상승이 섭씨 2도로 제한되더라도 해수면 수위는 역시 당초 예상보다 2배나 되는 50cm가 상승할 것이라고 SCAR는 덧붙였다. /연합뉴스